

신부를 건드리지 말라

아세르 인트레이터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분의 신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창 2장), 모든 이스라엘의 왕비(특히 에스더), 아가서, 복음서의 결혼 비유, 바울의 서신들, 영화된 여인(계 12장), 준비된 신부(계 19:7), 혼인 잔치(계 21장)에 까지 나타납니다. 이것은 큰 비밀입니다(엡 5:32).

고대에는 왕비들을 시종들고 돌보는 이들을 '환관(eunuch)'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부들의 사랑의 감정을 결코 건드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조건을 전제로 권위를 위임 받았었습니다.

예슈아만 믿기로 헌신된 우리는 주님의 영적 신부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신랑의 친구들"(요 3:29)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부에 속하기도 하지만 예슈아께서 오실 때를 위하여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대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이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부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환관들처럼(마 19:12), 결코 신부의 애정과 관심, 소유권을 훔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놀라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30년이 된, 제일 친한 친구이자 애인입니다. 허나 저는 아내의 인생에 있어서 2인자입니다. 1인자는 예슈아이십니다.

우리 중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훔치거나 애정을 소유"하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 죽기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만, 반드시 2순위에 그쳐야 합니다. 이는 예배 인도자, 목사, 설교자 및 권세나 영향력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으심 안에서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신 예슈아께 이끌려옵니다. 그 정도는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하나님과 모세 모두를 믿었습니다(출 14:31).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마음을 자기를 향하여 끌지 않고자 아주 애썼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성향에 대해 죽기까지 광야에서의 40년이 걸렸습니다.)

애정과 영예를 얻으려는 무의식적인 갈망은 믿기 어려울 만큼 위험하고 교묘합니다. 이것이 루시퍼의 타락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과 신뢰를 누리면서도, 교만의 미묘함에 유혹되어 "신부를 건드리게" 되지 않기를 축

원합니다. 신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꿈

(발췌, 2012년 1월 20일과 21일 사이의 밤)

저희는 집 근처(이스라엘)에 있는 한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구름은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졌습니다. 믿음 있는 이들은 이것이 재림의 때가 임했다는 징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말할 필요가 없이 모두가 그냥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겨우 13-14분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 배터리에 남은 시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사일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공중에 있고 13-14분이면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 주어야 하겠다는 긴박성을 강렬히 느꼈습니다.

주위의 믿지 않는 이들은 전쟁이나 지진-쓰나미 같은 큰 재앙이 곧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아나고자 한 자동차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피해 달아나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저를 내쫓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가족들과 함께 한 대의 차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아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것이 옳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결국 주님께 외쳤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회당에서 알게 된 또 다른 가족 쪽으로 돌이켜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들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메시지를 거절했고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다른 차를 타려하고 있는 가까운 친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인상을 찌푸렸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공포는 세차게 강렬해졌습니다. 저희 믿는 이들은 결코 자신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온전히 평안했고 저희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염려가 커져서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니 저희가 한 일 중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들

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공포와 똑같은 두려움과, 하나님 왕국의 복음(마 24:14)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행 1:8), 그것도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피하리라)” (행 2:20-21)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긴박한 부담을 가지고 잠에서 깬습니다.

에스더 금식

3월 7일 수요일에 진행될 12시간 금식 기도를 여러분의 달력에 표시하여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미사일 공격?

헤르질리아 컨퍼런스(the Herzliya Conference)에서 에후드 바락 국방장관(Ehud Barak), 모세 야알론(Moshe Yaalon) 국회 의원, 아비브 코하비(Aviv Kochavi) 정보부장은 모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안을 옹호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코하비는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현재 사정권 안에 20만 대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의 축구장 난동

이번 주 카이로의 포트 사이드(Port Said)에서 열린 축구 경기 직후의 난동에서 74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이 난동에 연루된 카이로 출신의 “울트라스(ultras)” 갱단은 무슬림 형제단과 관련이 있고 금년 초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한 무리 소속입니다. 이들은 관중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이집트 군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표를 확보하고 있는 한편,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가면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